우간다에서의 20 년을 돌아보며

저는 우간다에서 거의 20 년간 사도직을 하고 나서 2019 년 12 월에 독일로 돌아와 현재 그레프라트 뮬하우젠 수녀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
키바알레 구역의 외진 관목 지대에서 여섯 명의 미국 수녀님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2019 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그레프라트의 성 베네딕도 본당 신자들처럼 선의를 지닌 많은 관대한 분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. 그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. 기부금 덕분에 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.

지난 몇 년간 우간다가 발전하기는 했지만 키바알레 구역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합니다. 인프라도 없고, 산업도, 교통 체계도 없고 도로도 2019 년에야 건설되었습니다. 그래도 2016 년부터는 전기도 들어오고 있고 2019 년 3 월 1 일 이래로 수도시설도 있습니다. 노틀담 수녀들은 미국과 독일의 기부금으로 우물을 파서 수녀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로를 놓았습니다.
유치원을 제외하고 학교는 완전히 기숙학교인데, 외진 관목 지대에 위치해 있어 오고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모든 아이들이 학비를 지불해야 함을 뜻합니다. 그 수입으로 급여를 주고 약 900 의 학생들과 직원들의 양식을 마련합니다. 다른 사립 학교에 비해 학비가 비싸지는 않지만 어떤 학부모는 비용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감자나 토마토, 옥수수, 망고, 파파야같은 현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곤 합니다.

한편 우리 교육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. 우간다 내 최고의 학교 순위에서 남녀 공학의 우리 성녀 쥴리 초등학교는 학군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틀담 여자 고등학교는 우간다 전역에서 6 위를 차지했습니다.

마리아 베르나데 데리히슈바일러 수녀, SND